

LOCAL TRIP 2

오키나간 밸리를 음미하는 시간

# Savoring Time at the **OKANAGAN VALLEY**

과거와 현대를 잇는 캐나다 원주민의 터전, 오키나간 밸리에서 미식과 와인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문화 여행을 즐겼다.

---

WRITTEN BY KAREN GARDINER  
PHOTOGRAPHY BY AMANDA CASTLE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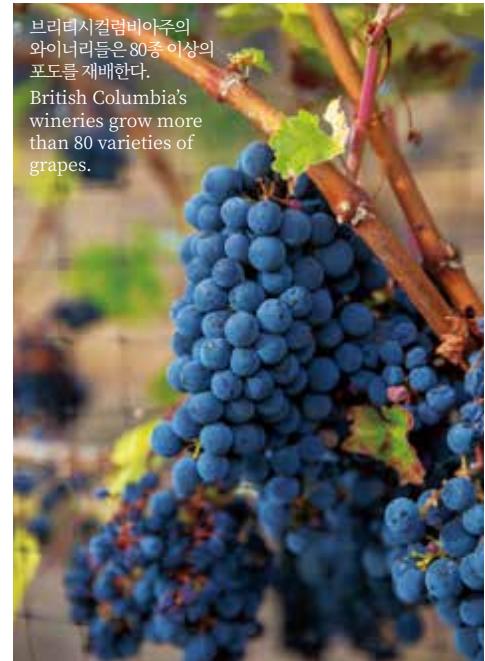
슈스와프호에서 보내 어느 여름날 오후  
A summer afternoon at the Shuswap

## The Okanagan Valley is home to Canada's First Nations who maintain timeless traditions. Visitors can look forward to culture, gourmet food and wine.

태너 프랑수아가 몇 사람을 데리고 지하로 내려가더니 ‘케쿨리’로 들어갔다. 이 지하 구조물은 수천 년간 브리티시컬럼비아 내륙의 오카나간 밸리 북쪽에 살고 있는 세크웨펨족의 전통 겨울 움집이다. 세크웨펨족 공동체의 일원인 프랑수아는 타오르는 장작불 앞에 서서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에게 닥친 일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17~20세기 캐나다 원주민들이 겪은 추방, 대량 학살, 강압적 동화의 고통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프랑수아는 리틀 슈스와프 호수 언저리에 자리 잡은 콰아웃 로지&스파에서 문화대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이 호텔은 원주민 기초자치정부인 리틀 슈스와프 레이크 인디언 밴드 회원들이 새로운 일과 기술을 배우는 한편, 각지에서 온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릴 목적으로 세워졌다. 실제로 여행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케쿨리에서 부족의 역사를 배우거나 약초 태우는 의식에 참여하는 등의 문화 체험이다.

나는 3일간의 오카나간 밸리 문화 여행 도중 콰아웃을 방문했다. 슈스와프 호수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북서부 국경까지 펼쳐진 오카나간 밸리는 과일을 재배하는 지역이다. 여행사 모카신 트레일스의 공동 소유주인 그레그 호프가 이번 여행을 인솔했는데, 이 소규모 여행사는 육로와 수로를 통해 원주민이 직접 진행하는 원주민 집중 탐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간 브리티시컬럼비아는 태평양 북서부 해안을 따라 거주하는 코스트 샐리시족의 문화유산이 풍부한 지역으로 잘 알려졌으나, 주 내륙 지역은 여행객에게 외면당하기 일쑤였다. 호프는 이런 점을 바꾸고 싶어 했고, 내륙에 살며 저마다 고유한 문화를 간직한 여러 부족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3일간의 여행을 통해 세크웨펨족은 물론 오카나간 밸리 원주민인 시일스족 사람들과 장소를 새롭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펜틱턴의 에노킨 센터에 도착하자 오카나간 자치구 소속의 트레이시 킴 보노가 우리를 맞이했다. 에노킨 센터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인 펜틱턴 인디언 밴드에 자리하는데, 공동체 회원들의 모임 장소이자 현재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뿐인 시일스 언어를 학습하는 기관이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술을 이해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보노는 이야기를 아름답게 조각한 기둥을 가리키며 해안 지역에서 흔히 보이는 토템 기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기둥에는 시일스 창조 신화에 등장하는, 식량 담당 족장 넷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이 관장하는 곰, 연어, 비터루트, 새스커툰 베리는 오카나간 요리의 핵심 재료다. 우리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와이너리들은 80종 이상의  
포도를 재배한다.

British Columbia's  
wineries grow more  
than 80 varieties of  
grapes.

My visit to Quaaout is part of a three-day cultural trip through Western Canada's Okanagan Valley, a fruit-growing region that stretches from Shuswap Lake to the U.S.-Canada border. The trip is led by Greg Hopf, co-owner of Moccasin Trails, a small tour company that offers Indigenous-led and -focused tours by land and water. British Columbia is well-known for the rich cultures — and the monumental totem poles and spectacular masks — of the Coast Salish peoples, who live along the Pacific Northwest coast, but visitors often overlook the First Nations cultures of the province's interior. Hopf wants to change that. “We need to highlight the Interior Salish,” he says of these peoples, who have their own distinct folkways and live far inland. This three-day trip does just that, offering an enlightening introduction to the people and places of the Secwépemc and Syilx Nations, the Okanagan Valley's Indigenous peoples.



전기 자전거를 타고 오소유스 주변  
와이너리들을 돌아볼 수 있다.

Cruising downhill on an  
electronic bike during a tour  
of wineries near Osoyoos

낚시와 래프팅, 스쿠버ダイ빙  
등으로 유명한 쿠스와프 호

A tranquil lake in the  
Shuswap, an area renowned  
for fishing, boating, rafting  
and scuba div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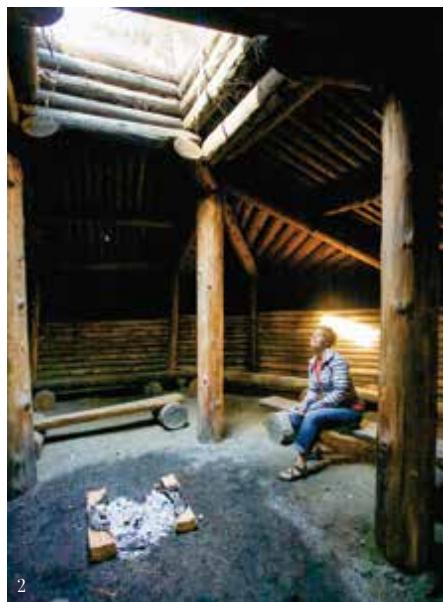
1

In the city of Penticton, Tracey Kim Bonneau from the Syilx Nation welcomes us to the En'owkin Centre, located on the Penticton Indian Band reserve, the largest in all of British Columbia. En'owkin is a gathering place for community members as well as a learning institution where people can study Nsyilxcən, the language of the Syilx people, today spoken fluently by only 50 people. During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visitors can learn more about local artistry. "The intent is that people who come here understand our art," says Bonneau, pointing to four beautifully carved story poles, which she emphasizes are distinct from the totem poles commonly seen on the coast. Carved on the poles are images of the four Food Chiefs from Syilx creation stories. The bear, sal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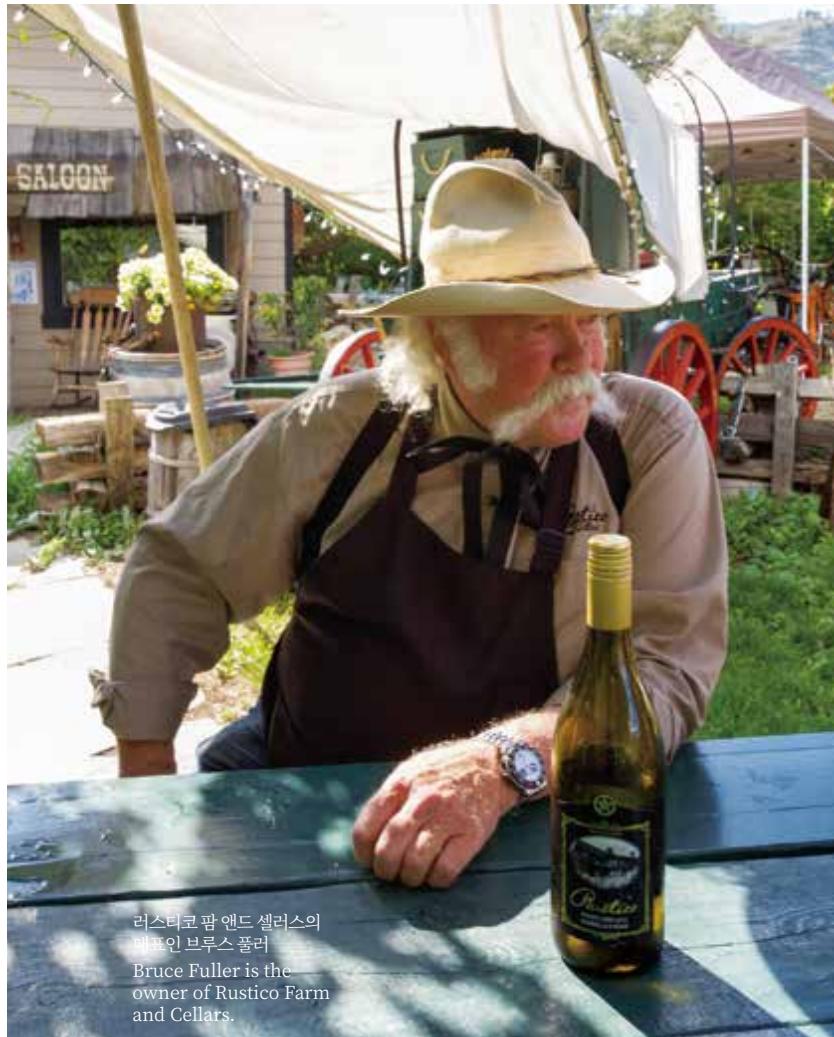
오카나간 밸리의 남쪽 끝이자 덥고 건조하기로 손꼽히는 오소유스의 스피리트 리지 리조트에서 이 족장들을 다시 만났다. 이 땅을 신성하게 여기는 오소유스 인디언 밴드(이하 OIB)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였다. 리조트 레스토랑 '더 베어, 더 피시, 더 루트 & 더 베리'는 유명 요리사 머리 맥도널드의 지도를 받으며 식량을 관장하는 네 족장에 따라 4가지로 나뉜 메뉴를 선보인다. '베어(곰)'에는 들소나 사슴 등 네발 달린 육지 포유류 요리, '피시(물고기)'에는 광어와 연어 요리, '루트(뿌리)'에는 샐러드, '베리(산딸기류)'에는 디저트가 포함된다. 이곳에서 식사를 할 경우 와인은 필수다. 레스토랑에서 곧장 인카립 셀러스 양조장의 포도밭이 내려다보이는데, 리조트와 마찬가지로 OIB에서 운영하는 북미대륙 최초의 원주민 소유 와인 양조장이다. OIB는 1968년부터 포도밭을 가꾸며 브리티시컬럼비아 인근 양조장에 포도를 판매해왔고, 2002년 문을 연 인카립은 족장 클래런스 루이가 내세운 비전, 'OIB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주축이 되었다. "그의 지도에 따라 우리는 북미대륙에서 가장 성공한 인디언 밴드가 되었습니다." 호프가 말했다. 원주민 와인 양조가들은 피노 누아, 메를로, 샤ルド네부터 리슬링으로 만든 아이스와인, 화이트 머림을 비롯 한 몇 가지 블렌딩 와인, 세미옹과 소비뇽 블랑으로 만든 와인까지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생산한다. 일부 밴드 회원들에게 이곳은 오랫동안 품어온 꿈과 근면 성실한 노동을 실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처음 일할 때 청소

1 오소유스 인디언 밴드가 운영하는 인카립 사막문화센터  
The Osoyoos Indian Band runs the Nk'Mip Desert Cultural Centre.

2 코아웃 로지&스파는 세크웨펜족의 겨울 움집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There are various events at the winter home of the Secwépemc people at Quaaout Lodge & Spa.



2



러스티코 팜 앤드 셀러스의 대표인 브루스 풀러  
Bruce Fuller is the owner of Rustico Farm and Cellars.



틴호른 크릭 양조장 내 자리한 미라도로 레스토랑  
A wine glass and vista at Miradoro Restaurant

담당이던 저스틴 홀은 OIB의 지원을 받아 야간 수업을 받고 자격을 취득해 14년 뒤 와인 양조가로 진급했다. “저는 땅과 유대감을 느낍니다.” 홀이 말했다. “저는 이곳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생태계가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협력하는지 배웠습니다. 대자연을 잘 돌보면 10배로 돌려받는다고 믿고 있고요. 포도를 기를 때에도 이와 똑같은 사고방식을 적용합니다. 최고의 포도를 길러야 최고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인 양조가로서 그는 오래 전부터 밴드가 해온 일을 이어받아 땅을 관리한다.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와인에는 원로들과 조상들의 고된 노동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를 있게 한 노동이지요.”

비옥한 오카나간 밸리는 오래전부터 캐나다에서 특히 과일이 많이 생산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여름에는 과일 농장에 방문하거나 과수원 투어를 할 수 있고, 도로의 수많은 기판대에서 사과, 체리,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살 수 있다. 180곳이 넘는 와인 양조장이 자리한 덕분에 와인 투어 명소로도 각광받는 중이다. 현재 오카나간 호숫가에 위치한 도시 웨스트 켈로나에는 미션 힐 패밀리 에스테이트, 마운트 부슈리 에스테이트 와이너리, 인디저너스 월드 와이너리 등 유명한 와인 양조장이 있는데, 모두 웨스트사이드 와인 트레일을 따라 자리한다.

마지막 날, 우리는 오카나간 문화유산과 와인 양조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

on, bitterroot and Saskatoon berry represent the key elements of Okanagan cuisine and are believed to have given themselves as food for the people. “Everything we do is dependent on these Food Chiefs,” says Bonneau. Our next couple of days in the Okanagan Valley prove her words true.

Wine with dinner is a must. One restaurant we visit overlooks the vines of Nk'Mip Cellars, operated by the Osoyoos Indian Band (OIB) and the first Indigenous-owned winery in North America. The OIB has maintained vineyards since 1968, selling grapes to wineries around British Columbia. When Nk'Mip (meaning “bottom land” in Nsyilxcən) opened in 2002, it represented a realization of Chief Clarence Louie’s aim for the OIB to become self-sufficient. “Under his tutelage it



1 선록 양조장은 남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길게 뻗어 있다.  
Sunrock Vineyards stretches along a gentle south-facing slope of sandy earth.

2 슈스와프호에서 즐기는 카야킹  
Kayak sailing on Shuswap Lake



2

는 인디저너스 월드 와이너리에서 이번 여행을 기념하는 잔을 들었다. 시음실 주변에 흘어진 붉은빛의 황토 바위에는 조각이 새겨져 있었고, 와인 라벨에는 시일스 문화를 알리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었다. 영업부장 라이언 위드업의 설명에 따르면, 이곳은 2016년 웨스트뱅크 퍼스트 네이션의 족장이던 로버트 루이와 그의 아내 버니스가 오픈했다. 문화에 중점을 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릴 목적이었다. 와인 판매장 아래쪽 골짜기에서는 서늘한 기후에 딱 맞는 품종인 머스캣 포도가 자라고 있었다. “이 양조장의 콘셉트는 전통과 현대문화의 만남입니다.” 위드업이 말했다. “와인에서도 구세계와 신세계의 만남을 느낄 수 있죠. 드라이한 프랑스와 스페인 와인 스타일에 과일의 특징을 아름답게 가미한 와인을 생산하거든요.” 이곳이 시일스 문화유산을 녹여내는 방식을 묻자 그는 “와인의 이름을 통해서”라고 답했다. 히히텔킨(Hee-Hee-Tel-Kin) 화이트 블렌드를 잔에 따르며 “고지대에 살며 좀처럼 보기 힘든, 뿐이 큰 수사슴”이라고 이름의 뜻을 설명했다. 이는 루이의 아들이 지닌 시일스 전통 이름이기도 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인디저너스 월드 와이너리에서 (이번에도 역시) 네 족장을 기리기 위해 새로 출시한 종류주 중 보드카를 시음했다. 오카나간 밸리의 비옥한 땅과 깊은 역사, 선조들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족 공동체의 삶이 한잔 술의 향기처럼 여행자의 마음에 오롯이 스며들었다.



#### 여행자를 위한 정보 Info for travelers

**가는 방법** 캐나다 밴쿠버에 도착한 뒤 오카나간 밸리의 관문도시인 켈로나행 항공편으로 갈아타거나 차로 5시간가량 이동한다.

**거점 도시** 오카나간 밸리 지역에는 무수한 마을과 도시가 있지만, 여행자의 거점으로는 켈로나와 웨스트 켈로나, 그리고 펜티턴이 적당하다. 숙소와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는 데다 오카나간 밸리 어느 지역으로든 이동이 용이한 도시들이다.

**How to Get There** After arriving in Vancouver of Canada, take a flight to Kelowna, the gateway city of the Okanagan Valley, or drive about five hours by car. **Surrounding Cities** There are countless towns and cities in the Okanagan Valley, but the main ones are Kelowna, West Kelowna, Penticton and Vernon. Each of these cities has plenty of places to stay and dine. It's easy to travel within the Okanagan Valley, especially if you rent a car.



더 많은 내용은 e-book에서 확인하세요.  
Check out the e-book for more information.

has become one of the most successful Indian bands in North America,” says Hopf. The fertile Okanagan Valley has long been known to be one of Canada’s largest producers of fruit — in summer you can visit fruit farms, tour orchards or buy fruits like apples, cherries and peaches from numerous roadside stands. West Kelowna, on the shores of Okanagan Lake, has some of the area’s best-known wineries, including Mission Hill Family Estate and Indigenous World Winery. Now, with more than 180 wineries, the region is becoming a prestigious wine destination. The people of the Okanagan Valley continuously strive to keep the land fertile and maintain their ancestors’ traditions. The lifestyles of the local communities imbue the traveler’s impressions like wafts of wine.